

시뮬

어머니 조국을 노래합니다

받아라오 아이들의 웃음을

강은별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
제일 아름다운 싹들을 팔라
그대에게 드릴 기쁨 엮을 수 있
건만
조국이며, 나는 부디
아이들의 웃음 들려드리고 싶어서

솔하의 천만자식 다 말아안고
고생도 고집도 많은 어머니
바라노니 오늘날은 9월의 이날
만은
그대의 큰 락인 아이들 웃음
속에
만시름 푸시라 기뻐하시라

후대를 위해 세월에 마르지 않는
예정의 바다 가슴에 품은
어머니
아들딸들 꽃잎으로 띄워안고
밤이나 낮이나 고운 노래 불러
주며
잠들지 않는 어머니
세상에 오직 그대뿐

아이를 좋아라 마시는 젖제품
모금모금 자식들 달게 넘길 때
이 나라 넉넉한 목이 메이도록
가슴에 차오른 뜨거운것
력사의 어느 갈피에 온 나라
아이들
모두에게 젖줄기 물려준 나라 있
더냐

말해보라, 사람들이여
첼라라 차려지는 교복을 입고
아이를 출주듯 달음재간 학교길
그 기쁨 위해 천을 꿰어본이 있
던가
학용품 그흔한 《소나무》책가
방에
어느 부모 품 한자루 넣어본적
있던가

조박아래
아이들은 내버려진 찬 얼음덩이
바다같은 사랑 하늘같은 정
끝없이 안겨주는 어머니
아, 이 땅에 아이들 행복의
웃음
천만구슬로 짰 채우고싶어
마음쓰는 어머니 나의 조국이며
아이들 웃음은 그대의 재부머
힘
고생을 잊게 하는 무한한 행복
아이들이 웃음소리 더 크게 울려
다오
조국이며, 받으시라 들으시라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를

수령님 주신 인간의 존엄이었고
감방벽에 새겨 수령께 드리는
나의 선서였고 맹세였다
0.75평 그 지옥속에서
0.001평도 내주지 않은 조국이
었다
첼창에서 흰기를 들지 않았기에
공화국을 당당히 날릴 권리를
안고
조국으로 수령님품으로 돌아왔
거니

비전향의 30여년
몸은 비록 적국의 감방속에 있었
어도
나는 조국의 품에 안겨 살았어라
국가는 하늘을 향해 계약된다 하
지만
이 마음에 계약되던 기발
내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영원히 불안고 살 람홍색기발
죽어 너오라도 품고살 나의
조국이며

부듯한 그 공지로 남의 땅에
살아도
당당히 어깨펴고 가슴은 넓어집
니다
아, 기쁨의 명절 회회의 9월

애국의 마음도 불같은 9월입니다
그리운 평양은 김정은원수님의
품
우리 동포들 언제나 평양을 안고
삼니다
영원히 원수님품에 안겨살렵니다

아버지의 금별 메달

김대룡

지금도 내 때없이 서군 하노라
우리 집 벽의 영웅메달알에
이 메달 생각깊이 마주할 때면
마치 아버지를 마주하고 선듯
어찌면 그 모습 생생히 비껴오
는것이나

때일찍 내걸을 떠나간 아버지
한마디 유언은 남기지 못했어도
누구나 남기지 못하는 금별
이 아들에게 무거이 없어놓은
던가

전선으로 뺨은 궤도우에 눈내리
던 날
전시수송의 먼길 떠난 아버지
웃으며 떠나간 그 자국속에
돌아오는 자국 더는 찍히지 않던
그날의 눈 오늘도 가슴에 녹지
않아

볼비가 쏟아진다 주저했으랴
떠나며 돌아올 길을 생각했
으랴
바람짓 있다면 오직 그것은
실사 살아 돌아오지 못한대도
그길로 원수를 처이긴 승리가
오른것

아버지의 피가 배인 그 궤도
우에
랄선없는 한생을 놓아야 할
나는 전시공로자영웅의 후손
심장을 바친 애국의 참된
삶에

심장 아닌 무엇으로 내 삶이
으랴
바라보는 말없는 금별에서
애국의 넋을 꿇듯이 이어가라!
아버지의 목소리 들려오지 않는
다면
내 국기의 오각별을 잊고산다는것
이어가야 할 애국의 궤도에 녹이
스나다는것

기꺼이 생을 바쳐 지쳤고
생을 다해 받은 어머니조국이
뜻있어 금별로 빛내어준 영웅들
간간이 추억으로 더듬으며
살라고
그들은 굳이 후손들 남길것 아니
거니

피를 넘겨받듯 절로 물려받은
유적이 아니다 애국은
그것은 전세대가 곁었던 뜻깊은
길에
리글 없이 남기는 랑심의 자옥
그들의 넋으로 불같이 사는
인생

민어다오, 아버지여 영웅세대여
그대들 참되게 살아 떠맡든
조국
우리 후손들 무궁토록 빛내가
려니
오늘도 나는 금별메달에서 아버지
를 본다
오, 조국을 위해 높릴 나의 심장
을 본다

우리는 평양에 안겨삼니다

— 한 해외동포가 부르는 노래 —

김영일

기다려 기다려온 경사의 날입
니다
어머니조국의 75돐생일입니다
류달리 눈부신 9월의 태양은
가고싶고 안가고싶은 평양
그리움의 그 하늘에서 솟은것입
니까

평양의 모습과 달라도 평양거리
인듯
경축의 물결 굽이쳐 흐릅니다
보십시오, 치마저고리 고운
녀인들
아이들 손에 나뭇기는 국기
불어에는 바람도 평양바람인듯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의 9월과
조국인민들 오르는 만수대
그 언덕에 경포의 꽃바다 넘
칠 때
여기 걸림에서도 도끼의 조선회관
에서도
동포들 삼가 꽃바구니 드리옵
니다

이역의 우리 보고싶어 원수님
바다건너 구름너머 오신것은
아닙니까

환하신 존안 화면에서 비오니
그 품에 안긴것같아
아, 티르러는 눈물은 행복입니다
무대우에 펼쳐진 조국의 춤과
노래
이역에서도 흐리지 않은 민족의
얼
페부깊이 스며드는 조국의 향취
입니다
어게 들썩 어질썩기 춤바다 펼쳐
동포 사는 이 행성 어디나 명절
입니다

그 누가 멀리 떨어져있으면
정도 멀어진다는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조국과 더 가까와지는
9월
우리 마음에 그리운 아버지
오시고
이역망 어디서나 날리는 내 나
라 기발
조국의 숨결 심장마다 흘러넘칩
니다

평양의 풍기로 승취고
조국의 노래를 부르며
원수님품으로 사는 해외공민

적구에서 품고산 나의 조국이며

리철준

9월의 아침햇빛 눈부신 집 창
가에
내 국기를 띄우노라니
떠덕이는 기록은 추억의 노래
인듯

이 마음 실어가누나
저 멀리 흘러온 아득한 세월에도
조국과 떨어져 첼창속에서
30여년
다만 그리움이고 사랑이었더냐
잇으면 그 순간에 숨줄 끊기고
버리면 원수가 짓밟는
국기는 나의 심장 나의 신념

지금도 눈감으면 떠오르누나
형리를 몰래 감방벽에 새기던
기발
뜻으로 새기다 못이 닳으면
손톱이 모지라지도록 그리던
기발
그 손톱마저 다스리저 피가
흐르면
붉은 피로 그리던 내 나라 기발

원수들 달려들어 먹물을 뿌려대
기를
쇠조각으로 굶어대기를 그 얼마
공화국을 잇으라 송장이 안되려
거든
퍼붓는 악형에 빠는 부시졌어도
신념의 기발대는 꺾지 못했어라
이 마음의 기록 찢을수 없었
어라

첼창속의 죄인이라 생각했다면
열백번도 더 늘렸을 진항도장
병약한 옥신 치욕이라 여겼다면
한치 감방밖의 세상 부러웠을
이 몸
공화국기발 잇기엔 3초도 길었
으리

무엇이었던가 조국의 기발은
넋과 피, 생과 아니 바꿀 사랑
이었던가
아득히 먼곳에 있는 정의 세계
버릴것이란 하나도 없는
소중한 삶의 그 모든것 아니던가

국가가 인민에게 안겨주는 선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스러운 75성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민 사랑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그 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얼마나 많은 인민 사랑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가. 공화국의 철도전기화도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되어왔다.

주체37(1948)년 9월 15일이였다.

이날 저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집무실에서 내각책임인들과 교동성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철도는 건국사업과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다음 첫 큰 공사로서 일부 구간을 철도를 전기화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력자원이 풍부하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철도를 다 전기화할수 있습니다.》

확신을 넘치신 그의 교시에 일군들 누구나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지 겨우 3년밖에 안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수십년 지어 수백년의 공업발전력사를 자랑하는 몇개 나라들에서나 볼수 있는 철도전기화를 창건을 선포한지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 우

리 공화국의 계획으로 선언하시니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기록소리를 높이 울리며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질풍같이 달려고있는 전기기관차들을 상상해보면 해도 일군들은 그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었다.

희망과 기대, 의혹이 가득 어려있는 일군들의 얼굴을 밝은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는 지금 형편에서는 철도전기화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수 없기때문에 구배가 심하여 철도수송에 큰 지장을 초고있는 개고-고안간, 양덕-천성간부터 먼저 하자고 한다시며 그들의 의향을 물으시였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폐해 버리면 철도 수송이 됩니다.》

《장군님, 저는 철도전기화공사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리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반대했다면 철도전기화공사를 시작해보자고 하시면서 힘있는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철도전기화공사는 공화국이 창건되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중요건설대상이라는 의미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의의가 대단히 큼니다. 이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되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어 인민들에게 베푸는 첫 선물로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격정의 파도가 새차게 일었다.

우리 공화국이 인민들에게 베푸는 첫 선물!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신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물론 지금 기술과 경험, 자재를 비롯한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체로 철도를 전기화한다는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반드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철도전기화를 하여야 하며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철도운수를 급속히 복구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경제를 부흥발전시켜 공화국국민부의 민주기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확고한 의지가 차넘치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개고-고안간, 양덕-천성간 철도전기화공사를 오는 12월말까지 완공함으로써 주권을 잡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공화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야 한다고 선언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일어선서 열광적인 박수로 수령님의 결심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함께 전국의 기술자들과 자재설비들을 이 공사에 집중시키도록 친히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공

수필 우리 선수들이 펼쳐든 국기를 보며

XXII ITF TAEKWON-DO WORLD CHAMPIONSHIPS

며칠전 지하철도에서 있는 일이다.

전동차를 기다리며 역쪽에서 신문을 들여다보던 나는 우리 나라 태권도선수들이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와 함께 우승컵을 높이 추켜들고 시상대에 올라 람홍색공화국기를 긍지높이 펼쳐든 태권도선수들의 사진도 있었다.

비록 그 선수들에게 아는 사람은 없어도 이역땅에서 공화국기를 보란듯이 펼쳐든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곁에 있다면 누구보다 축하의 꽃다발을 먼저 안겨주고 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신문을 보던 사람들도 저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국기를 펼쳐든 우리 선수들의 사진을 보느라니 문득 궁지와 회열에 넘쳐있는 태권도선수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한 체육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1936년 8월 제11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에 마라손선수로 참가하여 단연 1위를 쟁취했지만 조국이라 부를 제나라가 없어 남의 나라 기발을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던 식민지체육인 청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밀 국호와 국기가 없어 그는 1등의 영예를 쟁취하고도 절통함과 지옥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체육인들은 공화국의 상징인 람홍색기발을 온 세계가 다 보게 땀나게 펼쳐들고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1위를 쟁취한 희열만이 아닌 존엄높고 강대한 공화국의 체육인이라는 긍지와 행복이 한껏 어리여었다.

그렇다! 조국이 없으면 하늘이 있어도 띄운 제 나라 국기도 없다. 조국이 강대하고 위대하면 국기도 빛나는것이고 그 국기야래 인민들의 삶도 행복하고 값있는것이다.

그러나 조국을 잃게 되면

국기도 없고 인민들은 땅속의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

우리 선수들이 펼쳐든 국기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람홍색공화국기발이야말로 세계만방에 우뚝 솟아 빛나는 내 조국의 존엄의 상징, 온 세상이 우러르는 조선의 위상이라고.

이 존엄높은 국기가 어머니조국의 탄생일인 뜻깊은 9월 9일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경의를 받으며 조국의 하늘가에 창공높이 거세차게 퍼덕이고있다.

눈부신 태양의 빛바라래 찬란히 빛나는 람홍색기발을 더욱 높이 휘날리며 우리 인민은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람홍색국기여,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무궁토록 나뭇기라.

김혜정